

축산업계 동향

수입쇠고기값 안올린다

—육류가격안정좌담회에서 정부측밝혀—

「수입쇠고기의 값은 올릴계획이 없으며 한우 고기값도 모든 물가가 앞으로 크게 올라 농가수지상 올릴수 밖에 없게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올릴것」이라는 정부의 육류가격 대책이 농수산부 김강식 축산국장에 의해 밝혀졌다.

최근 쇠고기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소비자보호 단체협의회(회장 李淑鍾)는 정부 당국자를 초치, 앞으로의 육류가격 문제를 듣기위한 좌담회를 지난 2월 14일 하오 개최하였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김국장은 수입쇠고기의 원가는 800원이지만 그 차액을 비육, , 농가 양돈자금 지원, 수입육 비축시설건립등 근본적으로 육류부족을 해결하고 성수기 파동을 막기 위한 축산진흥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육 비축시설인 5천평 정도의 냉장고를 짓는데만도 2백억원이, 2~3개월 소요분인 쇠고기(1만1천t) 돼지고기(4천t) 닭고기(2천t)을 확보하는데도 1백50억원이 필요하다는것

이날 모임에서는 근본적으로 육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특수종의 쇠고기 낭비습관을 고치고 쇠고기 위주로 육류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

었 즉 76년 일본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2.6kg인데 비해 한국은 2.7kg, 78년에는 일본의 1인당 평균 소비량이 3.7kg인데 비해 한국 서울 지역은 5.2kg이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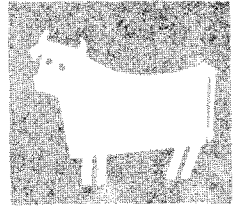
따라서 이날 좌담회에서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의 값은 올리지 않는다는 당국의 확실한 언질을 받았으며 쇠고기 위주의 한국인의 육류기호의 전환이 속제로 안겨졌다. (중앙일보)

자율적인외국종계 도입 허용

—국내도입 실적이 없는 계종은
경제능력 필한후—

본회는 78년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농수산부 당국에 장기적인 양계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지향하기위해 외국종계 도입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본회의 자율적인 물량 조절에 의한 적기도입을 해 줄것을 건의 하였던바 농수산부는 1월25일 축산 1162-150으로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이 회신에서 농수산부는 본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추천분은 수입을 허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대한양계협회에 설치된 종계 수급조절 위원회의 종계도입에 관한 심사활동을 강화하여 우수종계만이 선별되도록 할것과 대한양계협회와 국립종축장에 도입종계를 필히 능력검정을 실시하여 양축가가 우수종계를 선택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



해 왔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 2월 1일 종계수급조절 위원회와 부화분과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계종, 물량, 도입시기와 관계없이 외국종계는 허가부화장, 등록종계장에 수입 추천하게 하되 단 계종에 대하여 국내도입 실적이 없는것은 경제능력을 필한후 도입하도록 결정하였다.

서울시, 닭고기 유통개선방침 확정

—종로구, 중구, 아파트지역을
우선적용하여 점차확대키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서울시 시행 방침이 결정, 고시되었다. 서울시가 1월 1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축(닭)의 적용지역을 종로구 중구 및 아파트지구(건설부 고시 제131호 및 제169호로 고시한 지구)로 하고 간이도계장의 면적은 7평이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도계처리능력 및 공급체제에 적합한 도심지와 아파트 지역을 우선 적용하며 지도 계몽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간으로 하고 5월 1일부터는 무허가 업소의 도계행위, 미검사품의 사용, 조리, 판매행위를 지도 단속하게 되며 간이도계장의 허가는 적용지역내의 상업지역 또는 기타 가능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美, 전망밝은 산란업계

—계란소비증대 및 연구자금 활용
소비촉진사업 효율적인 수행으로—

미농무성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1978년 11월 한달 동안의 계란생산량은 1977년 같은 기간보다 1%가 증가된 56억 2천만 개였으며 산란계 평균 사육수수도 1년 전보다 3백만수가 늘어난 2억 8천백만수였다고 한다. 또한 작년 11월 한달동안에 부화된 난용종 초생추수도 1년전 같은 기간보다 3%나 많은 3,550만 수였으며 1978년 12월 1일 현재 부화중에있는 계란수는 1년전보다 15%가 증가된 3,540만개나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의 산란양계 산업의 전망이 밝아 진것은 American Egg Board가 전국에서 3,000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계란 생산자로부터 계란 한상자(360개)당 5센트(약 24원)씩 거출하여 모아진 계란소비증대 및 연구 활동자금(연간 600만불 정도)으로 계란소비촉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온 결과임에 틀림없다.

American Egg Board는 그동안 각종 매스컴을 총 동원하여 계란의 영양가치 및 요리방법 상차리기등을 제봉함은 물론 계란의 공업적인 이용부문개발을 위한 연구를 포함한 각종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계란수요 창조 및 증대를 꾀해 왔다.

축산업계 동향

농수산부 계육수매비축실시

—생산조절이 뒤따라야 할 것—

작년 11월말 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어 현재 kg당 320~380원선에서 출하되는 파동을 겪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러 본회는 농수산부에 사태의 긴박성을 전달하고 당국이 계획중에 있는 계육비축계획을 앞당겨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건의, 지난 2월20일 농수산부 회의실에서 본회 오세정회장 및 농수산부 송찬원 축산과장과 가공이용과 김기준계장, 축산진흥회 신현규업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계육 300톤을 (정육) 긴급 수매비축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축산진흥회는 서울경기지역에 한하여 육계 kg당 400원으로 수매 비축하기로 하였으며 (생산자가 도계장까지 운반인도가격) 대금은 직석에서 지불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2월21일 현재 축산진흥회는 한국가금처리협회(회장: 박응식)와 세부도계처리사항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협의 중에 있다.

따라서 본회는 현재 서울 경기지역의 계우회, 단지별로 체화물량을 접수중에 있으며 도계처리장이 결정되는 대로 지역별도계장에 물량을배정하여출하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매비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업계는 입란조절, 입추조절을 꾸준히 지속해야만이 현재의 비축사업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불황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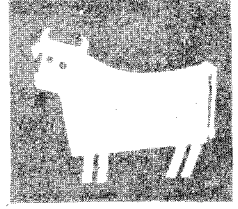
사료가공기술 세미나

— 4월 9일부터 19일까지 농수산부, 농업개발연구소, 캔사스대 주최로 —

농수산부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배합사료공장 시설근대화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공무원, 기술자 및 교수들에게 근대화된 사료공장의 설계 및 운영, 각종 사료의 가공기술, 사료의 저장 및 취급 사료의 품질관리, 배합율작성, 위생문제 및 안전관리 등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서 사료의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료가공기술 세미나가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농수산부, 서울대 농대, 농업개발연구소,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 식품사료곡물연구소 공동주최로 서울대 농대 시청각교육실에서 개최된다.

미국 Kansas 주립대학 교수 3명, 미국 사료곡물협회 및 미국대두협회 전문가 2명, 국내저명강사 5명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인 이 강습회는 40명의 관계관 및 기술자, 교수, 공무원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 강습회를 수료한 자에게는 농수산부장관, 서울대 농대부설 농업개발연구소장, 캔사스주립대학부설 식품사료곡물연구소장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수료증을 교부받게 된다.

이 세미나는 농수산부가 매년 2회 실시 해오던 사료품질관리 세미나중 1979년도 춘계분을 대치할 예정이다.



농산물, 민간업자 수입 견제

—식품 가공업체엔 실수요량 허용—

농수산부는 주곡인 쌀·보리쌀 이외 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민간상사에 대한 수입은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을 물가안정에 역점을 뒀 농산물 및 식료품 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국내생산에 한계성이 있는 품목의 수입을 개방하기로 했으나 쇠고기 돼지고기등 축산진흥회를 수입창구로 지정, 수급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들여오도록 하고 밀·옥수수 등 곡류도 농협중앙회 또는 축산진흥회로 하여금 수입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여 민간상사의 수입을 견제키로 했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밖에 고추, 마늘등 식품가공업체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수요량에 한해 자가 수입하여 원료를 확보,생산에 차질없도록 할 방침으로 있다.

닭고기와 계란유통개선

따른 간담회 개최

서울시 농축과와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조합장:윤도진)이 주관하는 닭고기와 계란의 1단계 유통개선 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1월26일(금) 오후 6시부터 남산 소재 외교 구락부에서 개최 되었다.

본회 오세정회장을 위시한 농수산부 관계 당국자와 관련업계 인사 18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닭고기유통에 관한 서울시 시행방침과 서울·경기 양계 협동조합의 활동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계란비축문제 간담회 개최

— 2월14일, 농수산부 축산과 주재로—

농수산부는 송찬원 축산과장을 위시한 관계관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2월14일 오전 농수산부 축산과 회의실에서 계란 비축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계란가격 침체 원인 분석, 서울·경기 양계 협동조합 직판 활동 보고, 농협, 군납 상황보고, 비축사업의 방향등이 논의 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임덕성 사무국장과 조성남 기획부장이 참석하여 소비촉진 홍보비용 지원 요청과 난가안정 기금 제정의 법제화를 건의 하였다.

젓소 수입추천 요건 크게 완화

—집약초지 없이도 입식 가능—

농수산부는 급격한 소비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제품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원유증산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올해 부터 젓소도입을 개방,

축산업계 동향

집약초지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젖소수입 추천을 해주기로 했다.

개정된 젖소수입추천요령에 따르면 낙농경영을 희망하는 일반농가 또는 기업양축가가 초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료포 0.2ha만 갖추면 젖소 1마리를 입식할 수 있도록 수입추천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그런데 농수산부는 종전에는 젖소 1마리를 입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초지 0.5ha를 확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초지 0.2ha사료포 0.2ha△초지 0.1ha 사료포 0.1ha·답리작 0.4ha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었다. 한편 농수산부는 이같이 젖소 수입을 개방, 올해 3만두를 수입할 계획이며 국내증식분을 포함, 작년말 젖소보유 13만5천두를 금년말에는 19만두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송아지 생산장려금 35억지급

—암수 구별없이 마리당 6천원씩—

농협중앙회는 올해 송아지생산장려금으로 35억 1천 5백 만원을 책정, 암수구별없이 마리당 6천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1일 농협에 의하면 작년말현재 전농가 보유 한우·육우가 1백 73만 5천 8백 84두로 집계됨으로써 올해 송아지출산량이 한우 58만두, 육우 6천두 등 총 58만 6천두가 될 것으로 예상, 마리당 6천원씩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우증식을 위해 77년 6월부터 지급해 온 송아지출산장려금은 작년에 53만 7천

9백94두에 31억 9천 7백32만 5천원을 지급, 목표 27억원의 16%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농가는 생후 12일이내에 읍면에 신고하면 현장을 확인한후 발급되는 생산확인증을 첨부하여 생후 15일이내에 관할 단위조합에 제출하면 즉시 지급해준다

농협이 책정한 금년도 송아지 생산장려금의 분기별지급계획은 다음과 같다(단위 =천원·괄호안은 생산예상 송아지두수)

△ 1/4분기=632, 880 (105, 480)

△ 2/4분기=527, 400 (87, 900)

△ 3/4분기=914, 160 (152, 360)

△ 4/4분기=1, 441, 560 (240,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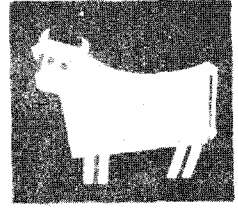
유통정보망 전국으로 확대

—농협, WTT 1백15대 연결—

농협중앙회는 농산물의 유통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정보의 전국 망체제를 확립하고 정보위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일 농협에 의하면 WTT 1백15대를 연결하여 출하·판매·가격등 일일정보교환을 의무화 하고 정보수집지역을 1백13개소에서 1백24개소로 늘리는 한편 1백19명인 정보위원을 1백50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또 정보전달매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등 5대도시의 공판장에 자동전화응답장치를 설치, 이용토록 하고 49개 라디오 방송과 TV의 시세방송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주당 2천부의 유통정보책자를 발간, 배포키로 했다.



전세계 사료곡물생산

7억 3천 2백만톤

- 옥수수 전체 50%차지 -

78/79년도의 전세계 사료곡물 생산과 교역량은 작년에 이어 네번째로 사상 최대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국들의 사료곡물수요 또한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사료곡물의 90%를 생산하는 북반구의 수확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볼 때 78/79년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 즉 3천 8백만톤이 많은 7억 3천 2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옥수수가 약 반을 차지하고 보리는 25%, 수수가 10%, 그리고 ку리가 나머지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수산부, 종계장 및 부화장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계획

- 축산진흥 자금중 3억원 용자예정 -

농수산부는 축산진흥회 축산진흥기금중 3억원을 우량종계 생산보급과 부화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본 계획에 의하면 축산진흥 기금중 3억원을 대상자 10개소(개소당 3천만원)에 연리 12.5%, 3년 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용자해 출 예정이며 자금은 계사, 부화기 자동급이기, 종계기자재 구입 등 시설 근

대화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과 자담능력(총 사업계획 자금중 30%)을 갖춘 기존 양계장중 대한양계협회장의 추천에 의해 축산진흥회장이 결정토록 되어있다.

농업계 졸업생에 축산자금 용자

- 올해에 1백 30여명 1인당

4~6백만원 까지 -

농수산부는 축산진흥기반 구축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농대와 농고, 농전을 졸업하는 1백 30명에게 축산진흥기금에서 5억 8천만원의 자금을 용자, 축산후계자로 육성할 방침이다.

19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축산개발을 이끌어 나갈 기간 양축지도자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축사시설, 가축도입, 사료비및 부대시설비 총 소요액의 70%수준에서 농대졸업자에게는 1인당 6백만원, 농고·농전 졸업자에게는 4백만원 한도내에서 용자한다는 것이다.

또 용자조건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12.5%인데 올해 용자 대상과 규모는 작년 20명, 8천만원 보다 대폭 증가된 것이다.

한편 관계당국자들은 국제육류가격 폭등으로 국내 축산진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어 올해부터 양축후계자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업계 동향

축산물 비축 가공 시설 설치

- 농수산부, 3천두 규모 도축장도 -

농수산부는 년내에 착공예정인 서울 농산물종합유통센터내에 축산물 1만 2천 5백 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비축시설과 하루에 소 5백마리, 돼지 5백마리를 가공처리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축산물 수입 증대에 대처하여 가격조절을 위한 상시비축제를 실시하기 위해 9천 1백 80평(건물면적) 규모의 저장시설을 농산물종합유통센터내에 설치하여 적어도 1만 2천 5백 50톤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하루에 소, 돼지 각각 5백두분을 가공할 수 있는 1천평(건물면적) 규모의 가공시설을 갖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가축의 국내증식에 대비하여 하루에 소 1천두, 돼지 2천두를 잡을 수 있는 1천평규모의 도축장도 설치할 계획인데 이 같은 시설은 축산진흥회에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대미 사료시장조사단 구성

- 3월 3일부터 3주간 미국각지시찰 -

배합사료의 물량증가에 따라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가 커짐을 고려하여 주요 수입시장의 사정을 정확히 조사·파악하기 위한 한국사료원료 시장조사단이 미국사

료곡물협회 한국지부(지부장: 박영인)의 주선으로 3월 3일부터 3주간 동안 渡美하게 된다.

농수산부사료과장, 축산진흥회업무부장 사료협회무역부장, 경북도청축정과장 및 사료회사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은 박영인 지부장과 동행하여 미국각지의 사료곡물과 대두의 생산, 국내유통, 가공이용현황을 돌아볼 예정이며 아울러 USFGC와 USDA의 세계 사료원료 수급 동향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주요수출회사와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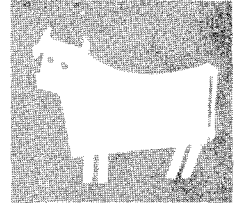
'79년도 겨울 농민대학 성료

-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 협회 주관으로 -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총재: 유달영)가 기업농 농장관리기술자, 전업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와 기술 전달을 위해 개설한 '79겨울 농민대학이 지난 2월 4일부터 15일 까지 전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 개최되었다.

농민대학은 양계·양돈·양토과를 위시한 11개 학과에 670여명이 등록 전기반·후기반·고등반으로 편성하고 대학의 저명한 교수, 시험 연구기관의 연구관, 독농가 출신들의 성공 사례담들의 열의있는 강의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네 농민대학은 1965년 부터 14년째 94기에 걸쳐 11,567명의 수료생을 배출, 영



농과학화의 일익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

미국 사료공장설비에 관한 세미나

- 2월 14일, 무역회관에서 -

한국사료협회와 미국사료협회(AFMA)는 한국사료공업의 과학화를 위하여 미국 TADCO사의 주선으로 미국 사료공장설비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 2월 14일 무역회관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가 후원한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료공장 설비관계 제작 및 판매상황 등이 소개되었다.

축산진흥 간담회 개최

- 한국 축산업의 당면 문제점과

진로 방향 논의 -

한국축산단체연합회(회장: 유윤수)는 한국축산의 당면한 문제와 그 진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축산진흥간담회를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부터 남산 외교 구락부에서 가졌다.

본회 오세정 회장을 비롯하여 각 축산단체장과 학계인사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의 수급, 가격, 유통, 축산업진흥기반조성의 방향 및 축산업진흥의 성력화방향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곡물외의 식품증산 86년까지 3천 3백억원 투입

- 경제기획원 종합적인 식품수급계획
마련 -

정부는 앞으로 식생활구조의 변화로 식품소비에서 곡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채소 및 과일류 육류 수산물등 곡물외의 비중이 높아질것에 대비 올해 부터 제 5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 8년동안 모두 3천 3백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곡물외의 식품의 증산에 주력키로 하는 종합적인 식품수급 계획을 마련했다.

2월 1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식품소비에서 곡물의 비중은 79년의 53.1%에서 86년엔 42.8%로 10.3% 떨어질 것이나 채소 및 과일류는 19.3%에서 22.6%로 3.5% 증가하는것을 비롯 축산물은 17.4%에서 21.9%로 4.5% 수산물은 10.2%에서

축산업계 동향

12.7%로 2.5%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바이엘화학 축산장학생 선발

동물용 의약품 전문메이커인 한국 바이엘화학에서는 지난 2월 19일 금년도 1학기 축산장학생 11명을 선발하여 명단을 발표하였다.

1. 강원대학교 4년 정순현
2. 전국대학교 4년 이상희
3. 경북대학교 3년 김종규
4. 경상대학교 4년 최영희
5. 동아대학교 4년 한성우
6. 서울대학교 4년 이성규
7. 서울대학교 4년 김 두
8. 서울대학교 2년 김종우
9. 전남대학교 3년 김정주
10. 전북대학교 3년 박강희
11. 충남대학교 4년 최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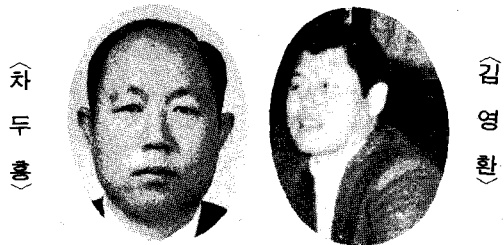
- ◇ 축산기구사(대표: 고규락): 개스육추기 전기육추기(미 Brower사제품), 계란선별기(화란 mova사 제품) 입하 배수중
- ◇ 한국바이엘화학(대표: 김길원): 계간 "바이엘서비스" 범호를 3월말경 발간 예정 구독 희망자는 업종, 사육규모, 영농경력등을 기재하여 강서구 가양동 257

-1 바이엘화학(주) 개발부로 신청 (우편번호 150-01)

◇ 홍영선(한국화이자): 미국 인디애나주 패리호데,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신제품 개발에 관한 회의 참석차 3월 9일 출국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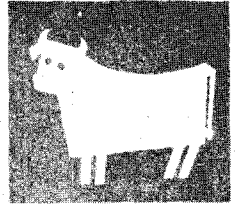
◇ 대한수의사회지: 대한수의사회가 발간하는 수의학분야의 학술전문지인 대한수의사회지가 지금까지 격월간으로 발간되다가 지난 2월호부터 월간으로 발간.

◇ 차두홍(한일농원·한일사료 대표)씨 미국 아바에카 및 바브콕 농장 초청으로 미국 양계산업을 시찰하고 귀로에 일본및 대만의 양계산업도 시찰하고 2월15일 귀국.



◇ 김영환(천호부화장 전무)씨: 본회제 2차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으로 선출

◇ 김춘수((KIST 연구부장)박사: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있는 상의 하나인三一문화상 과학기술부문 79년도 본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김박사는 누에의 인공사료개발에 관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는데 본



협회 이사인 김박사는 우리나라 사료영양 부분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바가 크다.

김
춘
수



◇ 일본 롯데의 유가공 및 육가공 사업을 위해 롯데 유업에 4백 94만 9천 \$을 투자하는 것을 19일 외자도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업계 인사

○ 한국화이자: 강용덕(산업대수의과 졸) 씨를 농축부 영업담당으로 기용.

○ 부국사료(대표 한호섭): 노용덕 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

○ 대한신약(대표 김흥기): 김도철 공장장을 전무이사로 승진 발령.

○ SF과학사료(대표 신정재): 홍순호 씨를 영업과장으로 한상은 씨를 기획업무과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

○ 서원사료(구 대신사료) 팽용승 씨를 사장으로 품질관리 및 생산담당이사 - 최환의(전 퓨리나 부장, 품질관리, 생산관리, 구매관리담당), 영업담당이사 - 김기용(전 퓨리나 부장, 기업관리영업관리 및 구

매관리담당), 기술담당부장 - 한인식(전한풍산업(주) 부장, 수의사, 질병예방 관리 기업농장 운영관리 담당)

○ 한국바이엘화학(대표 김길원): 아래와 같이 승진 및 신규 입사.

심창용(총무부장), 김창수(공장장), 이갑재(개발부장), 박종배(영업부차장), 송기연(영업부차장), 김창업(생산부차장), 이종찬(경리실차장), 박수경(개발부과장), 김병기(영업부과장)으로 계봉구(전, 삼양축산개발)씨를 개발부차장으로 윤 신근씨(전북대)를 기용.

○ 이글케미칼: 강성수(전남대), 김용석(영남대)씨를 특채.

○ 신촌사료: 권주옥(전대축대 졸) 씨를 영업부에 특채.

이 전

◇ 한풍산업(주) (대표·최죽송):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7번지(우남빌딩 1106호)로 사무실 이전. 전화 22-1120, 4887

◇ 지산종계부화장(대표: 송두진): 광주 시 서구 북동 250으로 사무실 이전. 전화번호는 3-5773.

◇ 지산가축약품상사(대표: 김조): 광주 시 서구 북동 250(지산가축 맞은편)으로 사무실 이전. 전화번호는 3-5773.